

[속보]총선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현장

⌕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3.24 14:54

민주노총 전조직 18대 총선승리 결의대회 열어

[사진2]

[사진1]

[4신/17:30] 노동자들 눈물 흘리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만세" 만세삼창 연호

이 시각 현재 참가자들 모두 민주노동당가를 제창하며 총선승리라는 글귀가 새겨진, 민주노동당을 상징하는 오랜지식 대형 펼침막을 함께 바쳐들고 팔뚝질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출신 총선후보자들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울산북구에 출마한 이영희 후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제게 두 가지 임무를 부여했다"며 "진보정치 울산북구 탈환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룩하라는 지상명령을 받았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된 홍희덕 민주연합노조 전 위원장은 "제 직업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부패냄새 진동하는 국회를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말해 큰 환호를 받았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김지희 동작을 출마 후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제게 별들의 전쟁에 왜 나왔냐고 묻는데, 저는 '동작은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재벌대표, 사이버 진보개혁 대표에 맞서 당당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경기본부장 이상무 경기화성시를 출마후보는 "제 이름이 '이상무'라며 "근무중 이상무, 차별철폐 고용안전 이상무, 민주노총 투쟁 전선 이상무,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용안전 쟁취, 서민경제를 이상무(후보)가 이상무로 만들겠다"는 재치있는 발언을 선보였다.

인천계양구울과 계양갑에 출마한 박인숙, 한정애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노동자의 '깡다구'를 보이고, 87년 투쟁정신으로 노동자·서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겠다"고 결의했다.

전남본부 김형운 여수를 출마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장이 되면 우리 삶을 척박하게 만드는 비정규법안, 파견법, 도급근로법을 폐기하고, 우리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법안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가스철도 우리 공공사업들을 국유화 하고, 한미에프티에이 국회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또 의정부갑에 출마한 시설연맹 김인수 후보는 "의정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 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걸 느낀다"며 애석한 심경을 밝히고 "나라 팔어 먹은 한나라당 버르장머리를 의정부에서부터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강릉지역에 출마한 시설연맹 염우철 후보와 강원도 속초에 출마한 시설연맹 이성국 후보는 "서민후보가 정치를 한다면 서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 같고 정권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서민들이 큰 목소리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서민들도 좀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며 총선 투쟁 결의를 밝혔다.

부천소사에 출마한 경기본부 이해원 후보는 "비정규법안이 국회에 통과됐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지역에서 노동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았다"며 "부천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초구에 출마한 전국공공연구노조 박천숙 후보는 "비정규직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3순위로 공천된 이정희 변호사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정

말 맞다고 말 할 것"이라며 "4월 9일 반드시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5시 30분 현재 민주노총 출신 민주노동당 총선후보들과 민주노총 지도부, 참가자 전원은 기립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만세!" "18대 총선승리 만세!" "민주노총 만세!" 구호를 선창하고 만세삼창을 연호한다.

본행사 종료 선포에 앞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뉴코아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을 언급하고 CMS 후원을 요청하면서 격려를 호소했다. 오후 5시30분 현재 민주노총 결의대회 본행사는 모두 마쳤고, 행사장에는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이 별도로 모여 투쟁영상물을 방청하고 이후 총선투쟁 결의를 잊고 있다.

[3신/17:10] △이석행 위원장 "민주노총 대동단결로 이명박정권 넘고, 총선투쟁 승리하자"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명박정권을 견제할 수 있단 말이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대표 "재벌과 이명박정권이 노동자 손발 다 자르고 있다"

오후 5시 현재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민주노총이 단결하고 또 단결해 민주노동당 강화하고 4.9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있기에 이명박 정권을 넘을 자신이 있다"며 "민주노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고, 반드시 4.9 총선을 반드시 이겨내자"고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출마한 민주노총 출신 후보들은 이 땅 진보운동의 싹을 튀우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시려는 분들"이라며 격려를 주문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어 "우리만 단결하고 준비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국민요구를 안고 맨 앞에서 투쟁한다면, 사회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승리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천 대표는 "오늘 이곳에서 민주노동당은 너무 큰 힘을 얻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몰아 준 큰 힘을 바탕으로 4.9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 상임대표는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제일먼저 민주노총을 민주노동당을 노린다면, 그러나 민중의 역공은 시작되고 그 힘은 4.9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자들 발언이 끝나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지방침 전달 상징의식을 가졌다. "노동자는 하나다, 우리에게는 오직 민주노동당뿐이다!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는 1천5백만 노동자 지지로 강화될 것"이라는 연호와 함께 우뢰와같은 박수와 함성이 연단을 뒤덮었다.

오후 5시 13분 현재, 민주노총 출신 민주노동당 18대 총선후보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후보자들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단결투쟁 총선승리' 구호를 외치며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3]
◆이석행 위원장 대회사 전문

=동지를 반갑습니다. 제가 마치 후보가 된 것 같다. 어렵게 두 달을 보냈다. 저는 늘 동지들이 현장에서 현장을 지켜주시기에 너무나 무 행복하다.

이십세기에는 미키마우스가 쥐로 유행했고, 이십일세기에는 '오원쥐'(이명박 정권의 영어몰입교육을 비난하는 말로 오랜지라는 발음을 영어원음으로 하면 오원지라고 한다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말을 비꼰 말)가 유행한다고 한다.

나라꼴이, 이명박 정권이 취임한지 딱 한달 됐거만 한 5년은 된 것 같다. (이명박정권은)대운하를 파겠다고, 한반도를 두 세개로 찢겠다고 한다. 그게 한반도를 살리는 것이라고 우기는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를 민자투자에 맡기겠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은 국어, 국사도 영어로 가르치라고 큰소리 치다가 지금 '자기는 그렇게 한적 없다'고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 임금 80만원 갖고 일년내내 저축해야 돈 천만 원도 안 된다. 그런데 대학등록금은 돈 천만원을 훌쩍 넘긴 시대다. 아무도 이 투쟁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병원도 기업이라며 돈 벌어야 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증, 의료보험증 가지면 종합병원

와 동네병원을 전전공공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명박 생각이다.

병원, 교육문제가 어떻게 보건, 전교조만의 문제인가? 우리 국민 전체 문제이고 사회 양극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자들, 서민들, 어렵게 사는 전체 민중들 문제이다. 이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박살내겠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박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하려는 내용을)우리 국민들이 (아직)잘 모르시는 것 같다.

어디 그 뿐인가. 시중에는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이란 유행어가 있다. 최시중에게 '군대 가서 탈영 안 했냐'고 물었더니 '휴가 기간 끝나고 내가 3일 뒤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군대에서 하루만 늦게 들어가도 탈영인가, 아닌가. 3일 탈영이면 감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아들은 수도 없이 위장전입을 했다. 최시중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한다. 어느 의원이 '그럼 귀신이 했던 말이나'고 물었더니 (최시중은)'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런 자가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한다. 언론노조와 함께 최시중을 반드시 타도하자.

언론에 가서 얘기해도 안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은 언론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계획하고 투쟁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날 한 두 달 동안 많이 울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가졌다. 그 아픈 마음, 지금도 갖고 있다. 그 설움 갖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떤 경우든 대동단결 대동투쟁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나(일동=큰소리로 '예').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서 떨어져나간 부분 때문에 민주노총도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건 민주노총이란 대중조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민주노총 80만은 하나로 단결해 이명박에 맞선다. 이명박은 제가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말을 했다. 떼법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자신있다. 코스콤 비정규 투쟁 현장에서, 알리안츠 투쟁현장에서 말했다. "저는 80만 조합원이 있기에 4.9 총선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라고. (민주노총은)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저는 자신있다. 여러분은 자신 있다. 다른 노총처럼 또 다시 저들에게 우리를 위탁하겠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우리 (민주노총 출신 민주노동당)후보 한 분 한 분은 지금 당선보다도 이 땅 진보운동의, 진보정치의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자신을 버린 분이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우리 후보동지들의 밑알이 썩어 우리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가 권리를 잡는 세상, 노동자 서민이 집권하는 세상, 여러분 만들어 낼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비아냥 거려도 나는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40%이하로 떨어졌다. 우리만 단결하고 준비하고 국민들과 더불어 국민요구를 안고 맨 앞에서 투쟁한다면 사회양극화 속에서 신음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 끝까지 뛰어나자. 동지들 사랑하고 존경한다. 동지들 참으로, 참으로 고맙습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연대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한 후보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 정말 힘 받고 간다. 동지들의 힘, 민주노총의 힘을 크게 받고 간다. 그 힘 모아서 오늘 동지들이 보여주시는, 동지들의 이 기운 모아서, 그 기운 받아서 4.9총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민주노총 후보 25명을 포함해 102명이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다. 그 102명의 전사들과 10명의 전국구 비례대표 전사들이 내일(25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결전의 날이 보름남았다. 그런데 이 정치권 선거판은 사실 혼란스럽기 이를데없다. 선관위는 최악의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투표율을 갖 50% 넘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왜 이렇게 됐나.

한나라당 본점에서 뛰쳐나온 대리점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그 대리점 명칭이 친박연대이다. 그런데 친박의 박씨, 박근혜 전대표를 상징하는 그 연대 당사자인 박근혜 전대표 본인은 한나라당에 남아있다. (한나라당)공천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간판 따로 달고 알량하게 국민들 눈속임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오만한단. 집권했다고, 대선승리했다고 오만이 극치에 달해 내부 권력싸움 하고 있다. 그 오만(에 젖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 견제해야 될 한쪽에 서있는 야당인 통합민주당, 그 대표는 몇 달 전 (한나라)당내 경선 직전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당원이었다. 또 한쪽인 자유선진당 총재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다. 누가 도대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단 말인가. 뭘 가지고 견제할 수 있나. 몇 달 전에 한나라당에 목매서 도지사 대선후보 했던 사람이, 그 정당 정치세력이었던 사람이 한나라당 공약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단 말인가. 이걸 코미디다. 못한다.

도로 민주당원 제1 야당되겠다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나선 민주당, 지난 집권당이였다. 의정단사에서 봤지 않나. (열우당과 민주당에는) 386,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운동가 출신들이 많았다. (이들은) 좌고우면하면서 민생개혁한다고 했지만 모두 한나라당 앞에 내동댕이 치는 걸 우리가 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들과 (일부) 공조했다. 기초 노령연금법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과 공조했었다. 결국 민주당 야합으로 갔지만.

민주노동당은 재래시장과 농민, 서민들을 위한다면 정책공조했다. 그러나 번번이 당했다. 두 눈 부릅뜨고 본 것은 이 땅 노동자 문제, 농민 문제, 진짜 자주통일의 문제, 이런 부분은 민주노동당 의원 9명뿐이었다. (17대 국회에서는) 299대 9로 갈라졌다. 대표적인 계비정규직법, 노동조합 분열해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9명 의원들이 의정실 문 걸어 잠그고 3박4일 농성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농성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은) 이 땅 노동자, 농민, 재래시장 상인문제, 기층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생활권리를 지키는 것에는 공조도 연대도 없었다. 진정한 자주, 진정한 통일을 위한 연대는 잘 안 된다. 이런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4년동안, 아니 지금 이 시각에도 절절하게 판단하고 있다.

식전 영상에서 이런 구호가 나오더라. “민주노동당, 어떻게 만든 정당인데, 정말 어떻게 만든 정당인데.” 민주노동당은 진보인사 몇 사람이 만든 정당이 아니다. 특정 정파가 만든 정당이 아니다. 이 땅 대중들의 운동 성과물이다. 역사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민주노동당은 누가 깰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없어져서도 안 된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고맙다. 이 어려울 때 다시 어깨 걸고, 힘주고 함께 해줘서 동지들 고맙다. 이번 총선 승리 동지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 주실 수 있나. 동지들 기운 받고 동지들 힘 얻어서 4.9 총선 반드시 승리 승리해서 민주노동당이 꿈에도 그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맙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대표 격려사

=여러분들 보니까 일내고 말 사람들이다. 아주 믿음직하다. 앉아서 이야기 듣자 하니까 천영세 대표가 ‘감사하다’고 거듭 얘기했다. 나는 조금 의아스럽다. 한식구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우리는 하나 아닌가. 굳이 역사를 따지고 말 것 할 것 없이 이남 땅 노동자 대표해서, 전체가 모일 수 없는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민주노동당 설립을 결의하고 탄생한 것 아닌가. 전농 대대를 통해 ‘우리 정치 대표체이자 우리 정치부대인 민주노동당 뿐이다, 전농 대대결의로 민주노동당 선택하고 함께 하기로 결의했는데’ 맞습니까.(일동=환호).

현장을 잃어버린 노동자들, 일터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왔다. 2백만 노점상들은 현장을 잃어버린, 다리가 잘린 노동자들이다. 노동자, 빈민, 노점상들이 노동계급이고 노동자들 결집체인 민주노동당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정권이 바뀌면 그 증상이 나타난다. 노동운동 총본산을 향해 창끝을 들이댄다. 노동운동 지휘부를 향해 강철군화를 들이댄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진보운동의 급소다”라고. 급소는 약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제국주의자, 사대주의자들, 재벌들은 민주노총을 없애지 않으면 탐욕을 채울 수 없고, 영구집권을 할 수 없다. 민주노총을 깨야 하고, 민주노동당을 분열시켜 약화시키지 않으면, 그 손발을 자르지 않으면 탐욕을 채울 수 없으므로 급소를 지른다.

우리는 방어하고 역공한다. 우리는 역공해서, 4.9 총선에서 승리하고 만다. (민주노동당)천영세 대표에게 불만있다. 창졸간에 한 일이라 102명이 출사표 던진 건 그렇다 치고, 왜 비례대표가 10명뿐인가. 원내교섭단체를 이번에 해야 하는데. 이번 4.9 총선 끝내고 민주노동당 당사에 가서 왜 비례대표 10명뿐이 안 됐냐며 난리치고 통곡하는 그런 4.9 총선 만들어보자. 아무리 적어도 20명은 당선시켰어야 하는데 땅을 치며 통곡해보자.

‘진보운동’이라고 한다. 진보운동이라는 것은 자주와 평등이다. 평화와 통일이다. 우리 행진할 때 그렇다.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4박자 구호다. ‘자주평등평화통일’, 이게 분단된 조국의 진정한 진보운동 아닌가. 내 나이 금년에 71살이다. 진보운동 기수 노동자, 농민들, 일터를 잃고 방황하는 노점상, 상인들이 모든 운동 중심에서 여성, 청년학도들과 함께 내 눈에 흠 들어가기 전에 자주정부 집권하는 것 봐야겠다.

총력진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신발이 되겠다. 시궁창에 들어가라면 시궁창에 들어갈 것이고 가시밭길에 가라하면 갈 것이다. 민주노총, 전농, 빈민, 청년학도, 여성 모두 민중해방 참세상 열어가자. 4.9 총선 승리 열어가자.

[2신/15:35] 2천여 조합원 운집, 민주노총 18대 총선 승리 결의대회 본대회 돌입

[사진4]

88체육관에는 2천여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성원들 2천여 명이 결집했다.

오후 3시 42분 현재, 뮤지컬극을 마치고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본대회 개막을 선포하고 민중의례에 돌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시각 현재 현장은 선관위의 삼엄한 감시가 벌어지고 있다며 총선후보자들에게 누가 되는 말은 하지 말자"며 이해를 당부했다.

연단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대표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 출신 민주노동당 18대 총선후보자들, 연대단체 대표자들이 운집했고, 참가자들 모두 기립해 '민주노총가'를 제창한다.

"정치의 선봉에서 민중의 등불이 되어 하나된 내조국... 민주노총이여, 노동의 큰 희망이여 노동자 주인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여라"

[1신/3월24일/15:05] "노동자를 국회로!"

본대회 개막 앞서 이명박정권 아래 노동자·서민 일상삶 파멸상 담은 노동뮤지컬극 선봬

18대 총선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기대를 모아낸 민주노총 총선승리 결의대회가 열린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KBS88체육관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18대 총선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막을 앞두고 있다. 실내에 설치된 스크린에는 반노동정권으로 자리매김된 '부자내각'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노동자 시각으로 묘사한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다. 이곳에는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출신 18대 총선후보자들, 총연맹 지도부 등이 총결집한 상태다.

◆18대총선 민주노총 후보자명단

[사진5]

총연맹은 이날 총선승리 결의대회에 대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핵심적인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민주당류의 보수정치 내부의 형식적 구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과속을 제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핵심해결과제인 사회양극화,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번 18대 총선에 25명의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에 맞선 유일한 대안 정치세력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자 한다"며 대회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 총선후보자 25명을 출마시켜 '국민들의 최대 걱정거리인 88만원 비정규직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천만원 대학등록금,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부동산폭등, 금융 시장화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오후 3시 10분 현재, 본행사에 앞서 노래패 희망새가 꾸민 가상풍자 단막 뮤지컬 '피가 필요하십니까'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이 뮤지컬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하는 친기업중심 신자유주의 강행에 따른 파멸적인 서민일상을 그린 연극이다. 뮤지컬극이 끝나면 '1%를 위한 정부'라는 제목의 영상 상영과 카드섹션 리허설 공연이 이어진다.

<현장=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